

금요 양성 May 17, 2024

단위 형제회와 공유하시오.

미국 국가 형제회가 최근에 “복음에서 삶으로” 라는 주석이 담긴 재속 프란치스코회 회칙을 발간했습니다. 가끔씩 발행되는 이 시리즈는 회칙의 머리말 (11월 17일자와 24일자), 회칙의 조항들, 주석 그리고 형제회안에서의 토론을 위해 만들어진 질문들을 제공합니다. 다음의 링크에서 “삶으로의 복음” 이란 책을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https://www.secularfranciscansusa.org/wp-content/uploads/Order-Form_October_2023rev.pdf

재속프란치스코회 회칙

3장 23-24조

제 23조: 재속프란치스코회 입회청원서는 각 단위 형제회에 제출하며, 평의회가 새 형제들의 입회를 결정한다.

정회원 입적은 일정한 지원기와 적어도 1년간의 양성기를 거쳐 회칙에 대한 서약으로 이루어진다. 이 점진적인 과정에서 전체 형제회도 회원들의 생활 태도를 통해 책임져야 한다. 서약을 하는 연령과 재속프란치스코회의 독자적 표지는 규정으로 정한다. 서약은 그 성질상 영구적인 의무이다.

특별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은 평의회에서 형제적인 대화로 자신의 문제를 토의할 수 있다. 각 형제회의 평의회는 잠정적 퇴회 또는 필요하다면 결정적인 제명을 회헌에 따라 결정한다.

제 24조: 평의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교를 촉진하기 위해 형제회의 정기적인 집회와 빈번한 만남을 가지며, 다른 프란치스코 그룹, 특히 청년 그룹과의 만남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모든이가 형제회 생활에 열심하도록 격려하며 프란치스코 삶과 교회의 삶이 향상되도록 더욱 적절한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주석

제 23조: 단원 23은 재속회에 평생 투신을 인도하는 교육과 경험의 두 요소와 함께 초기 오리엔테이션의 중요성을 명시한다. 또한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특히 새 회원과 형제회 생활에서 벗어난 회원을 위한, 평의회 역할 강조한다. 이 단원으로부터 많은 중요한 의미들을 이끌어 낼 수 있는데: 새 회원을 서약으로 이끌고 어떤 난관 속에서도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단지 회장과 영보뿐만 아니라) 일차적으로 평의회 책임이라는 것이다. 전체 형제회의 삶은 새 회원의 성장에 기여하고 그 삶을 강화한다. 더욱이, 서약은 프란시스의 방식에 따라 교회 생활과 사명에 가능한 한 충실히 참여하겠다는 성숙하고 영구적인 결정임을 강조한다.

제 24조: 단원 24는 강하고 지속적인 형제회 정신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들에 대해서 언급한다. 정기적이고 빈번한 모임 (보통 한달에 한번)은 기도, 교육, 사도적 활동, 대화, 여가 활동을 통하여 형제회를 건설하는 길이다. 프란치스코 사상과 교회 생활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은 또한 영적 성장과 공동체 건설의 방법임을 강조한다.

둘이나 여러 사람과의 토론을 위해, 또는 저널에 의견 쓰기

+23-24조와 주석을 다시 읽으시오:

- 초기 양성회와 형제회로의 입문

- 서약한 회원들 위한 질문: 분별과 초기 양성 시절의 경험을 그려보시오.
- 초기 양성에 들어선 사람들을 위한 질문: 자신이 속한 형제회의 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체험은 어떠합니까? 형제회 생활을 어떻게 준비시켜 줍니까?
- 성소를 분별하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에 있어서 형제회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 단위 형제회의 책임

- 당신의 형제회는 정기적으로 대면으로 만납니까?
- 전형적인 모임을 그려보시오. 재속 프란치스칸으로서의 당신을 어떻게 강화시켜줍니까?